

'신안선' 도자기 1만7천여점 광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내달 1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이관...2020년까지 해저문화재 전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의 품을 떠났던 '신안선' 유물 가운데 도자기 1만 7000여점이 내달 1일까지 광주로 온다.

남은 신안해저문화재도 오는 2020년까지 모두 이관되며, 이후 문화재는 2020년 신설되는 도자실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안선'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도 광주박물관 주도로 2020년부터 추진된다.

광주박물관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관 40돌을 맞았던 광주박물관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국립광주박물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3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문화기반시설이자 지역의 문화 교류 공간인 박물관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축인 복합문화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이번 신안선 유물의 광주 이관은 한국 도자문화 산실인 광주를 향후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이 같은 계획은 무등산 자락 효호동 일대에서 출토된



신안해저문화재 광주박물관 이관을 위해 중앙박물관 직원들이 수장고에서 포장하고 있는 모습. <광주박물관 제공>

분청사기와 강진에서 발굴된 고려청자 등과 연계하면 경쟁력 높은 도자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광주박물관은 연구를 토대로 '아시아 도자문화 아카이브' 건립을 제

안했다. 이 아카이브(250억 규모 추정)은 향후 한국 도자문화 재발견의 매개이자 한국과 아시아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안선'은 1976년 신안 앞바다에

서 한 어부가 건져 올린 도자기를 기화로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 수중 발굴 첫 보물선으로 당시 '세기의 발견'이라 불릴 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원래 중국 원나라 무역선이었던 신안선은 1323년 중국에서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신안해저에 침몰했다. 당시 배에서는 무역품뿐 아니라 고려의 공예품과 생활용품도 다수 발견됐다. 현재 신안선은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분체 복원 작업 중이며 3차원 입체(3D) 다중 영상 기법으로 만든 홀로그램영상을 상영한 바 있다.

광주박물관은 또한 기존 전시실과 시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을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3년에 걸쳐 2022년까지 본관 전시실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올해는 그동안 2층에 있어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획전시실을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서하로에서 본촌산단으로 진일을 위한 우회전 시 상습정체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박물관 입구를 북구정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박물관 전면으로 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신임 부의장 이제민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신임 부의장에 이제민(69)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또 경제과학특별보좌관에 이정동(52)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관 내 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명 키워드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이라고 전제한 뒤 "성장동력은 한계에 이르렀지만 새로운 길은 확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처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새로운 길잡이 역할을 두 분이 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신임 부의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을 역임했다.

대구 출신의 이 경제과학특별보좌는 대구계성고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같은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생산성학회 회장과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을 거쳤고,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드론으로 공시지가 조사 착수

위성영상 등 첨단 장비 동원

전남도는 국제·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가조사는 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 장비 등이 동원되고, 현지 답사로 이뤄진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한다. 개별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산정지가 검증 등 산정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결정지가를 5월 31일 공시하면 2019년도 개별 토지가격이 확정된다.

전남도는 올해 약 485만 필지(전체 토지의 84%)에 대해 사·군별로 일제 조사해 토지 특성 불일치로 인한 지가 산정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

발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분양가격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래가격과 일치시킬 예정이다. 또한, 수년 동안 인허가나 형질 변경이 없었던 토지 특성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 회의를 개최해 개별 토지 특성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불균형을 이룬 지가를 바로잡아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다음달 8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지가 산정 및 검증은 4월 12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지가 검증은 5월 7일까지 할 예정이다. 이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며,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면 최종 확정된다.

유영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원길 기자 cki@

"일 초계기, 해군 함정 540m 거리 위협비행" 美 "주한미군 방위비 마지노선은 10억달러"

군 당국 강력 규탄

군 당국은 23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이날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대조영함)을 향해 근접 위협비행을 했으며 일본 측은 강력 규탄했다.

서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 저고도로 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서 중장은 "작년 12월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한국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1월 18일, 1월 22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위협비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

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초계기는 지난달 20일에도 조난한 북한 선박 구조에 나선 해군 광개토대양함을 향해 저공으로 위협적인 비행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북한 여선 구조작전 중이던 광개토대양함은 근접하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경고통신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경제작전 중이던 대조영함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통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 도중 일본 초계기가 이어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 조치를 위해 급히 자리를 뒀다.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해상초계기 사격통제 레이다 조사(照査·겨냥해서비춤) 문제를 제기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1조3566억원 분담 요구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총액에 있어 한국 측의 12억 달러(연간 1조3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1조1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랍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부 지침이라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연말 미측의 수정제안이 '12억 달러 요구'-'10억 달러 마지노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유효기간으로 1년

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1년'으로 할 경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곧바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총액·유효기간 관련 갑작스러운 요구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9차 협의에서 일정 수준 점점을 찾았으나 10차 회의에서 미국이 갑자기 요구 수준을 높이며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의 지난해 말 '최종 제안' 이후 양 측은 입장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2월 말 북미정상회담 등 한미동맹과 연계된 굵직한 외교 사안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부대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관련 현안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
천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경매 입찰 / 낙찰 물건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비 등 1200만원

▶사무실 같이 쓰실 분!
H. 010-3605-5000

경
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7기)	광주교육대학교(197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한자급수(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문 의 :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부동산 매매

●남악 신도시●

지 번 무안군 삼합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매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접 사거리코너

권장업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증개물건임

(주) 조은일부동산

☎ 010-3111-5087

경매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 현경면 시골주택 단지 691㎡ 주택 63㎡ 3500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이주촌을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단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무안읍 원흥·다세대부지 균형 뒀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생촌동 운전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은 1억8500
- 강진군 드림평평관광공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참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단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회정동 건물 단지 388㎡ 건평 581㎡ 보증금 1억2천 월 700원 수입 1398천
- 완도를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10억
- 용봉동 고시텔 단지 357㎡ 건평 830㎡ 은행5억 매도 8억5천 조정가능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충장로 5가 핵심상권 단지 261㎡ 건평 1128㎡ 은행11억 매도 25억
- 목포시 상동 땅 1683㎡ 건평 1190㎡ 은행 3억8천 노인시설 적합 10억
- 정읍시 신대민은 1213㎡ 감정 6억4천 다세대 적합 은행 3억7천 매도 4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